

일자리 부족 전남, 자영업자 가장 많다

전국 평균 20.1%...전남 31.2% 울산·수도권 임금근로자 비중 커

전남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자영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이고, 가장 작은 지역인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비중이 작고 지방의 비중이 컸다.

전남은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전남지역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자영업 관련 종사자인 셈이다.

반면 대기업 공장직과 대형 조선소들이 포진한 울산은 취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임금근로자였다.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과 수도권 임금근로자 비중이 컸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1%였다.

시도별로 자영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남이 31.2%로 최고였다. 전남은 유일하게 30% 선을 넘었다. 이어 경북(28.3%), 전북(26.9%), 제주(26.6%), 충남(25.0%), 경남(24.8%), 강원(24.1%), 충북(23.5%), 부산(21.1%) 등 순이었다. 17개 시도 중 이들 9개 지역이 평균을 웃돌았다.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작은 지역은 대기업 공장이 있는 울산으로 13.8%였으며 이어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이 15.7%로 2위였다. 그다음으로 수도권인 서울(16.3%)과 경기(16.9%), 인천(17.0%)이고 대전(17.6%), 광주(19.1%), 대구(19.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의 자영업자 비중이 작았다. 이는 반대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다.

특히 전남의 자영업자 비중은 울산의 2.3배에 달한다.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전남이 1위였고, 울산이 최하위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한다.

전남의 비임금근로자는 40만3000명으로 전남 지역 취업자의 39.9%를 점했다. 전남 취업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자영업자이거나 관련 가족·친척인 셈이다.

울산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5.4%에 그쳤다. 전남이 울산의 2.6배에 달해 자영업자 비중보다 격차가 더 컸다.

서울(18.0%), 경기(18.7%), 인천(18.6%) 등 수도권은 평균(23.5%)보다 낮았다.

이에 반해 지난해 울산의 임금근로자는 47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4.6%였다. 취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다.

서울(82.0%), 경기(81.3%), 인천(81.4%) 등 수도권도 80% 선을 웃돌아 전체 평균(76.5%)보다 높았다.

이에 반해 전남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60.1%에 그쳐 60% 선을 겨우 넘겼다. 전남을 비롯해 경북(63.7%), 전북(65.3%), 제주(66.2%), 충남(68.9%), 경남(69.8%) 등 지방 6개 시도는 70% 선을 하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민 68.3% “실내 마스크 해제 찬성”

‘광주on’ 온라인 설문...81.7% “해제해도 당분간 실내선 착용”

광주시민 10명 중 7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부분의 시민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시민 정책참여단 2만4329명을 대상으로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on)’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찬성한다’ 40.3%(1253명), ‘매우 찬성한다’ 28.0%(870명)로, 시민 68.3%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반대한다’ 21.2%(659명), ‘매우 반대한다’ 7.5%(234명)로 28.7%가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잘 모르겠다’는 3.0%(94명)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시민 81.7%가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4.1%(1370명)는 ‘도도록 착용하겠다’고 말했고, 14.8%(460명)는 ‘무조건 착용하겠다’, 22.9%(711명)는 ‘당분간은 착용하겠다’고 했다. ‘당장 착용하지 않겠다’는 시민은 18.3%(569명)였다.

‘현재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선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51.2%(1593명)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에 대해서는 시민 83.8%(2607명)가 찬성했다.

허경 광주시 시민소통과장은 “광주시청 주요 이슈에 대해 ‘광주온(on)’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시의성 있게 수렴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올해 수소 승용차 200대 보급한다

1대당 3250만원 보조금 지원...충전 인프라 구축 집중

광주시는 “올해 65억원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수소 승용차 200대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소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공고일(1월18일)부터 사업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대상은 구매신청일 전일까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단체 등이다. 구매 신청은 1대로 제한된다.

광주시는 올해 보급물량 200대 중 180대를 일반 시민과 법인 등에게 보급하고, 20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 우선 대상자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출고 순으로 선정되며 차량 1대당 3250만원(국·시비)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수소승용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현

대상자 지정·대리점에 제출하면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기반산업과(062-613-3932) 또는 차량 제조·판매사(광주시 홈페이지 공고 참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광주시에는 수소승용차 1240대와 수소버스 22대가 각각 보급·운행 중이다.

수소자동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공기정화(미세먼지 제거) 효과까지 갖춘 친환경 차량이다.

안신결 광주시 기반산업과장은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수소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물 심각 “물 아껴주세요”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17일 오후 전남대 후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소년 58%, ‘세뱃돈’ 예금보다 주식투자 선호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세뱃돈을 예금하기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증권은 고객 9629명과 17~19세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 응답자 58%는 주식에, 41%는 예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각각 선택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모 응답자들은 세뱃돈으로 자녀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해외종목으로 테슬라(40%), 애플(27%), 엔비디아(7%), 알파벳(5%) 등을 꼽았다.

반면 청소년들은 세뱃돈으로 투자하고 싶은 해

외 주식 종목으로 애플(35%), 알파벳(23%), 테슬라(20%), 아마존(7%) 등을 선택해 부모와 선호하는 해외종목이 다소 달랐다.

청소년 응답자 43%는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은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고 답했다.

삼성증권은 설 연휴 기간 한국을 비롯한 중국·홍콩·대만 등 주요 아시아 주식시장은 휴장하지만 그 외 다른 나라 증시는 정상 개장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중간거래 등 해외 주식 매매는 모두 실시간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20년 노하우. 010-3605-5000

지난해 폐기화폐 4억장...전년 대비 2.3% 늘어

지난해 4억장이 넘는 화폐(지폐+주화, 장 단위로 통일)가 훼손 또는 오염돼 공식적으로 폐기 처리됐다. 한국은행은 2022년 중 폐기한 손상화폐는 모두 4억1268만장, 액면가로는 2조6414억원 규모라고 17일 밝혔다.

폐기 물량을 가장 많이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5만2418km로 경부고속도로(415km)를 63차례 왕복할 수 있고, 쌓으면 총 높이가 12만9526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15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233배에 달한다.

지난해 폐기 손상화폐 규모는 전년(4억352만장·2조423억원) 대비 915만장(2.3%) 증가했다. 지난해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예금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화폐 환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화폐 종류별로는 지폐(은행권) 3억5671만장(액면가 2조6333억원)과 주화(동전) 5596만장(82억원)이 폐기됐다. 지폐 중에서는 만원권이 1억9600만장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지난해 손상 지폐 가운데 교환이 이뤄진 대표적 사례를 보면, 경북에 사는 권모 씨는 지폐 화재로 탄 지폐 1169만5천원을 교환했고, 전남에 사는 정모 씨는 장판 아래 보관하다 수해로 인해 파손된 지폐 2886만5천원을 정상 지폐로 바꿨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손상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해준다.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 판별이 어려운 주화는 교환해주지 않는다.

/연합뉴스

명품 매장이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좌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3년 1월 1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1,450,000,000원 중 금 580,000,000원을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58,000주에 대하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의 비율로 균일하게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의 게재 익일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

2023년 1월 18일
주식회사 인산언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42(송정동)
공동대표이사 정경민
공동대표이사 정해성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재소공고)

주식회사 고운이엔지(갑)와 고운건설 주식회사(을)은 2023년 1월 16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의 재산(영양)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갑)이 합병하고 (을)은 존속하되 분할된 부분에 대한 (을)의 자산 및 부채 등 권리의 이행을 (갑)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들의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바라기에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갑" 주식회사 고운이엔지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39-1-2층 (동성동)
대표이사 김경민
"을" 고운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1, 4층(운안동)
대표이사 윤충호

71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특 광 525-3761 • 안 산 571-7658 • 용 북 433-1503	• 문 통 266-1960 • 신 약 222-8171 • 오 치 266-7801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부 225-6001 • 충 장 222-8171	• 동 통 222-8054 • 충 약 222-8054
남 구 • 남 부 673-6836 • 북 선 673-6836 • 진 월 671-7276	• 북 통 651-1833 • 송 하 675-6605
서 구 • 광 천 382-5788 • 서광주 369-1625 • 치 평 376-6511 • 화 정 369-1625	• 상 무 372-2352 • 문 천 376-7153 • 통 연 603-0311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청 단 973-2900	• 월 곡 959-192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